

필리핀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회의 자료

|| 목 차 ||

1. 회의 개요	-----	1
-----------------	-------	---

2. 필리핀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 필리핀 교류도시 추천 및 교류 추진 방향	-----	5
○ 필리핀 국제교류 정보	-----	23

1 회의 개요

□ 개요

- 일 시 : 2024. 10. 29(화) 14:00~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지자체 : 국제교류 담당자 등(서울시 도봉구)
 - 멘 토
 - 엄은희 박사(아시아비전포럼)
 - 한동만 前대사(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협의회 : 국제교류부장, 담당자

□ 회의내용

- 필리핀 교류 관련 국가 특성 및 협력 전략 등
- 필리핀 교류 관련 질의·답변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10	`10	회의 순서 및 참석자 소개	국제교류부장
14:10~14:35	`25	교류도시 추천 및 정보 안내, 교류 추진 방향 제안 등	엄은희 박사 (아시아비전포럼)
14:35~15:00	`25	교류도시 추천 및 정보 안내, 교류 추진 방향 제안 등	한동만 前대사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15:00~16:00	`60	지자체 질의, 응답	전체 참가자

2 필리핀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한국(도봉구)- 필리핀(Iloilo city) 지방정부 교류협력 가이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멘토링
2024년 10월 29일 | 시도지사협의회 브리핑룸

엄은희(아시아비전포럼 상임연구위원)

강사 소개: 동남아를 연구하는 지리학자



주요 경력

- 2008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 박사(필리핀의 광산개발과 정치생태학)
- 2008~2010년 성공회대학교 동 아시아연구소 HK연구 교수
- 2011년~2012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조교수
- 2012년~ 2023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및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2018년~ 現 외교부 동남아대양주 정책자문위원

최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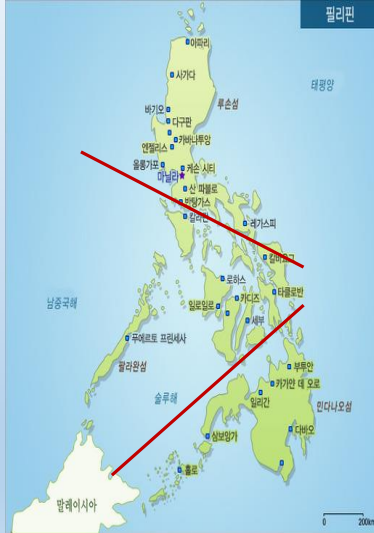
- 필리핀 2021 : 재난의 연장과 조기점화된 대선(2022년)
- Crisis Management and COVID19 in Southeast Asia (2021년)
- 장기화된 미얀마 위기, 중층적으로 읽기(2021년)
- 태국의 국경경제특구와 메콩 지역의 경제통합(2019년)
- 필리핀 경제특구의 성격 변화와 까비테 지역의 한국 투자기업(2018년)
- 팜오일의 정치생태학: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2017년)
- 민관협력을 통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지원(2017년)
- 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 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2017년)
- [저서] 인도네시아(2022), 동남아의 CSR활동과 지역사회 상호작용(2022),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2020), 한국 기업의 VIP국가 투자진출: 지역전문가의 조언(2019), 흑설탕이 아니라 마스코바도(2018년), 4차산업혁명과 아세안(2015년), 말레이세계로 간 한국기업(2014)등

목차

- 필리핀 개요 및 한-필 관계 75주년 : 경제 및 인적교류
- 필리핀을 이해하는 4개 키워드 : 바랑가이, 식민, 가톨릭, 영어
- 필리핀 정치의 이해
- 필리핀 지방정부의 구조 및 한-필 지자체 자매결연 현황
- 지역별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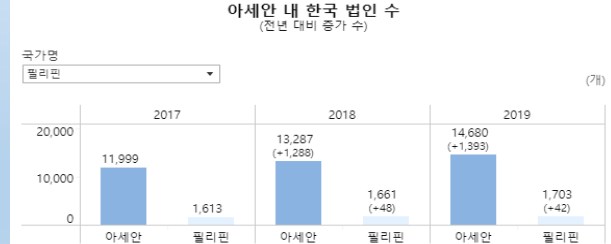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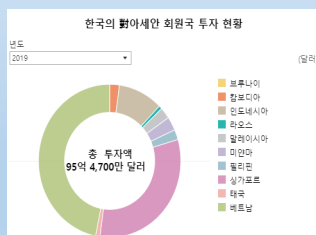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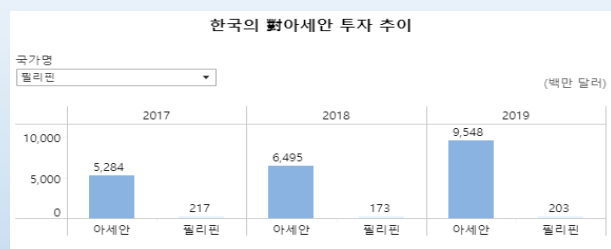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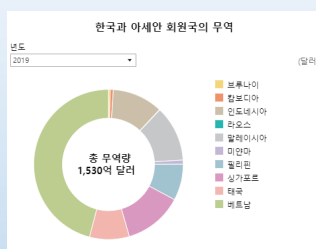


필리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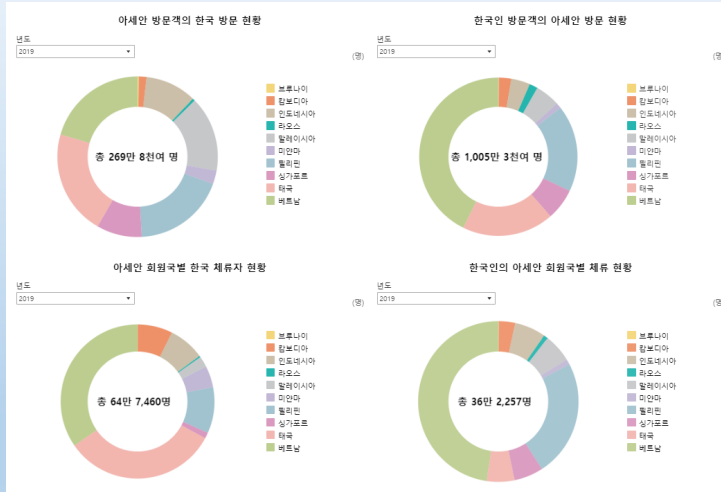
국명	필리핀 공화국
면적	300,179km ² (한반도 1.3배, 7000여 개의 섬)
기후	고온다습 아열대성 몬순 기후(건기와 우기)
인구	1억 491만 명(세계 12위, 동남아 2위)
수도	메트로 마닐라(약 1천 200만 명)
종족	말레이계가 다수(360여 소수종족 IPs)
종교	가톨릭(81%), 기독교(11%), 무슬림(5.6%) 등
언어	필리피노(국어), 영어(공용어), 170여 개 지방어
건국일	1898. 6. 12. (독립 선언일)
정부형태	1987헌법 제정 이래로 대통령 중심제(6년 임기)
국가원수	Ferdinand "Bongbong" Marcos Jr.(2022.06.30~)
입법부	양원제(상원 24명, 하원 297명)
명목 GDP	3,615억 달러/ 3,298 달러(per capita) 세계 32위 규모, HDI 107위 (2020)
화폐단위	페소(PHP)
교역규모	수출 795억 달러, 수입 1,080억 달러(2021)
산업구조	1차산업(22.9%), 2차산업(19.1%), 3차산업(58%)

한-필 관계 : 상보성이 낮은 경제관계



출처: 한아세안센터 온라인 통계자료

한-필 관계 : 높은 수준의 인적교류



출처: 한아세안센터 온라인 통계자료

- 국내 아세안 방문자수 3위
(태국 > 베트남 > 필리핀)
- 필리핀 내 외국인 방문자수 1위
(178만 3천, 2019)
- 아세안 내 교민 수 2위
(베트남 > 필리핀)



**필리핀을 이해하는
4개 키워드**
: 바랑가이
관문국가
가톨릭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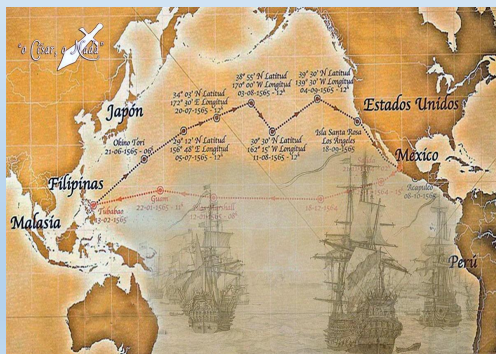
바랑가이 : 필리핀의 전통 사회



- 필리핀 전통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적 공동체, 기초 행정단위(한국의 읍,면,동에 상응함)
- 말레이(Malays)와 부기스(Bugis)들이 이동에 사용하던 발랑하이(Balanhay)에서 유래함.
- 바랑가이 캡틴, 직선제로 선출함.
- 2020년 12월 기준, 17개 지역(Region)-81개 주(province), 145개 도시(high urbanized city) 및 1,489개 군(municipality)-42,036개 바랑가이(barangay)

동남아의 관문국가(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

- 동남아시아의 동북쪽에 위치, 태평양에 맞닿아 있음.
-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남아 국가
- 비행시간 4시간, 한-필(마닐라, 세부, 클락) 매일 20편 이상 운항
- 냉전시대 한국의 동맹국(한국전쟁 참전국), 아세안 창립멤버(1967년 5개국)



- 마젤란의 세계일주 “향신료 산지를 찾아서”(1521)
- 스페인 식민지배(1571-1898) 동시에 역사적 기록이 시작됨.
- 태평양을 건너 온 식민세력
 - 두 바다를 건너온 스페인 세력
 - 유럽세력은 1800년대를 기점으로 분화
 - 미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식민지
- 갤리온 무역(1565-1815)을 통해 아시아-미주-유럽이 연결되는 글로벌 무역망에 편입됨.

종 아래 사는 사람들: 스페인과 가톨릭



Argao pueblo(세부시티)



블랙 나사렛 축제(매년 1월 9일)

- 아시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
- 스페인의 아시아 진출 동기는 3G(glory, gospel, gold)
- 필리피노 = '종' 아래 사는 사람들 : 지방행정체계의 핵심단 위인 푸에블로의 실질적 지배자는 가톨릭 신부(혹은 선교사)
- 교회: 행정기관+학교(따갈로그어 교육)
- 성곽도시 intramuros와 근대문화도시

영어와 미국화



-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의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 1935년부터 common wealth 자치 정부
- 도시개발, 근대적 교통망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침
- 정치 체제, 형식적 민주주의, 교육제도의 이식
-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정착 : 현재 필리핀 경제 성장의 근거





필리핀 정치 : 발전과 저발전

13

탈식민과 민주화 과정 : 필리핀과 한국의 비교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지배
(1565~1946)

독립 선언& 근대국가
출범
(1898/1935/1946)

마르코스 독재
(1965 | 1972~1986)

EDSA 혁명과
민주주의 복원
(1986~)

탈식민- 국민국가 형성-민주주의 제도 형성- 군사정부 퇴진-민주주의 복원

일본의
식민지배
(1910~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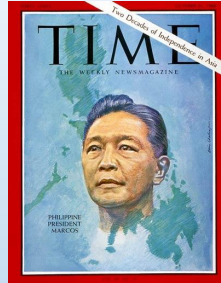
독립, 근대국가 출범,
한국전쟁
(1945~1953)

박정희 군사 독재
(1961 | 1972~1979)
군사정부
(1979~1987)

87항쟁과
민주주의 복원
(1986~)

21년을 집권한 독재자 마르코스(1965-1986)

- 1965년 첫 당선, 최초이자 유일한 재선 대통령
- 1969년 두번째 임기 시작
- 1972년 계엄령 선포 후 독재자의 길
- 1983년 니노이 아키노 8월 21일 귀향 중 암살당함
- 1984년 반미-반독재 투쟁
- 1986년 2월 하야 선언 후 하와이 망명
- 1989년 사망(72세)
- 1993년 유해 송환
- 정치가문의 부활(일로코스 노르테 주)
- 2022년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



1986 EDSA 혁명



- EDSA 기념일 : 1986년 2월 25일(승리의 날)
- EDSA(Epifanio de los Santos Avenue) 시위의 장소 (마닐라의 메인도로)
- 1986년 2월 23~25 200만 명의 시민 집결

세 번째 민주화 물결의 선두

필리핀의 1986년 2월 EDSA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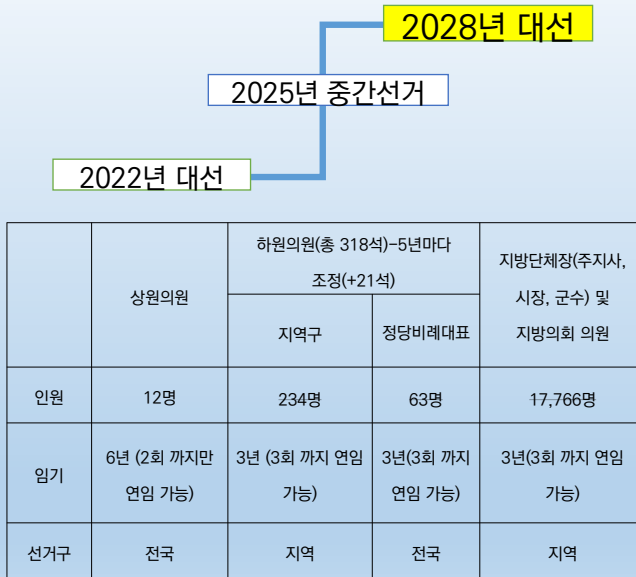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대만의 1987년 7월 계엄령 해제

중국의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 “필리핀의 ‘피플 파워’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리전쟁이었다. 학생들과 민주 인사들은 필리핀의 민중혁명이 실패한다면 당분간 우리 민주주의는 곤경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이유로 전두환 정권은 그것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6월 항쟁』(서중석, 2011, 돌베개, 121-122)

필리핀 선거제도: 3년 주기의 거대한 정치 이벤트



- 선거 시기 : 5월 둘째 주 월요일 선거(2025/5/12) 실시, 6월 30일 취임
- 선출공직자의 임기: 대통령, 부통령, 상원(6년), 하원 및 지방선거직(3년)
- 선출직 배분(2019년 중간선거의 경우): 상원 12석 /하원 297석(인구비례에 따라 지속 증원됨), 지방자치단체장(정/부 분리), 지방의회
- 선거 및 정치 특성
 - : 정-부 후보가 러닝메이트가 되지만, 투표는 각각 이루어짐(정-부 엇갈리는 결과)
 - :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주기적인 당적 이전)-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과

2019년 선거의식의 구성(1985년 선거법 및 1987년 헌법)

17



18

필리핀 민주주의 구조와 한계

South East Asia Research 24 (3): 328-40 (September 2016)

Political dynasties in the Philippines: Persistent patterns, perennial problems

Teresa S. Encarnacion Tadem, Ph.D. and Eduardo C. Tadem, Ph.D.

- 1986년 이후, 대중민주주의 대신 정치 엘리트들의 복귀(정치가문화)

Oligarcy / Elite Democracy / Political Dynasty

- 엘리트 민주주의의 근거
- 문화적 요소(가문정치와 후견-수혜 관계)
- 종교적 운명관
- 식민지 유산(미국 식민지 하에서 토지 자산가 계급의 정치 참여)
- 사회경제적 조건(고착화된 불평등)
- 제도적 요소(승자독식 대통령 체제)

19

최근 주요 국내외 정치이슈

필리핀 미군 기지 현황

- 2014년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체결 후 기지 배치(5곳)
- 2023년 신규 기지(4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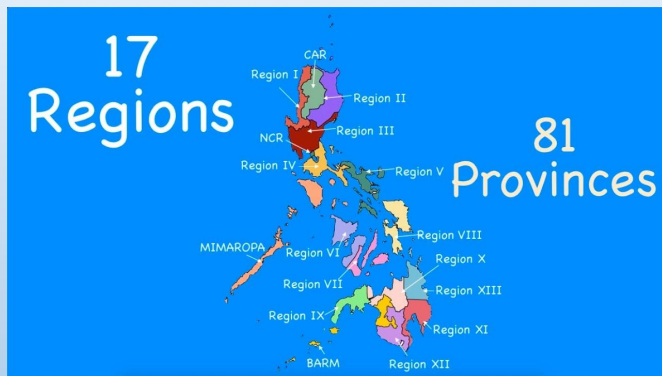
자료: 미국 정부

김영은 기자 20230405



이재윤, 김영은 기자 20231023





필리핀
: 도시 및
지역구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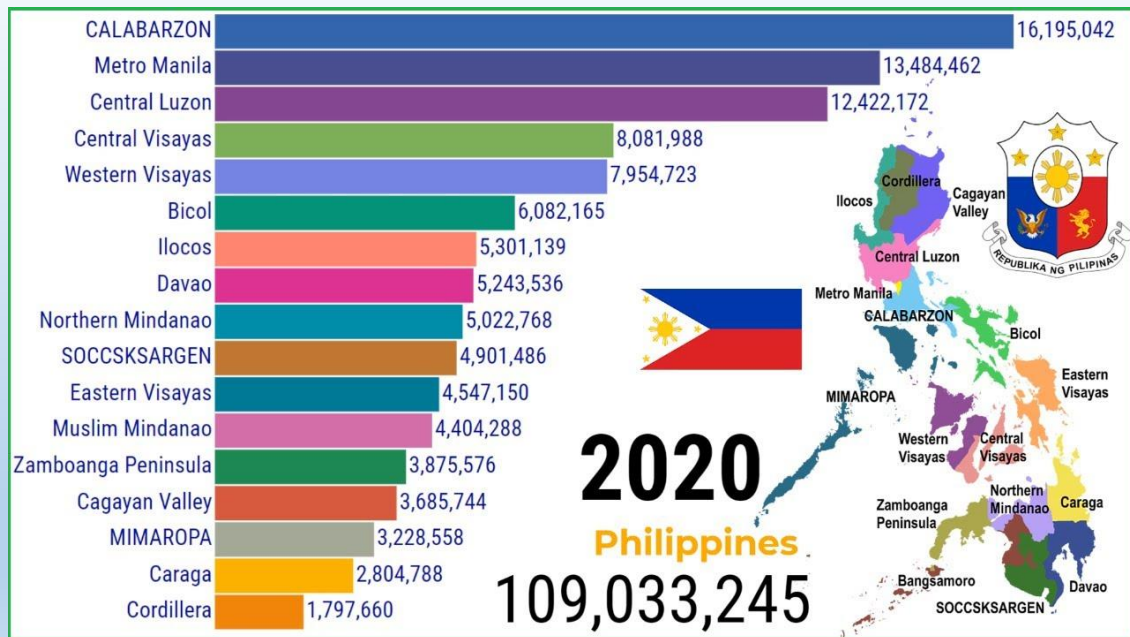
필리핀의 지역구분(Region) : 행정적 구분(정치적대표성X)

위치	지역구분	지역명	면적(km2)	인구 (2020)	인구비중 (%)
루손	NCR(Metro Manila)	메트로마닐라	619.57	13,484,462	12.4
	Region I	일로코스	13,012.60	5,301,139	4.9
	Region II	까가얀 밸리	28,228.83	3,685,744	3.4
	Region III	센트럴루손	22,014.63	12,422,172	11.4
	Region IV-A	칼라바존	16,873.31	16,195,042	14.9
	Region V	비콜	18,155.82	6,082,165	5.6
	CAR	코르딜라아자치지역	19,422.03	1,797,660	1.6
비사 야스	MIMAROPA	서던 따갈로그	29,620.90	3,228,558	3.0
	Region VI	웨스턴 비사야스	20,794.18	7,954,723	7.3
	Region VII	센트럴 비사야스	15,487.69	8,081,988	7.4
	Region VIII	이스턴 비사야스	23,251.10	4,547,150	4.2
민다 나오	Region IX	잠봉앙가 페니술라	17,056.73	3,875,576	3.6
	Region X	노던 민다나오	20,496.02	5,022,768	4.6
	Region XI	다바오	20,357.42	5,243,536	4.8
	Region XII	속스크사젠	22,513.30	4,901,486	4.5
	BARMM	민다나오 무슬림자치지역	12,535.79	4,404,288	4.0
	Region XIII	카라가	21,478.35	2,804,788	2.6

한국의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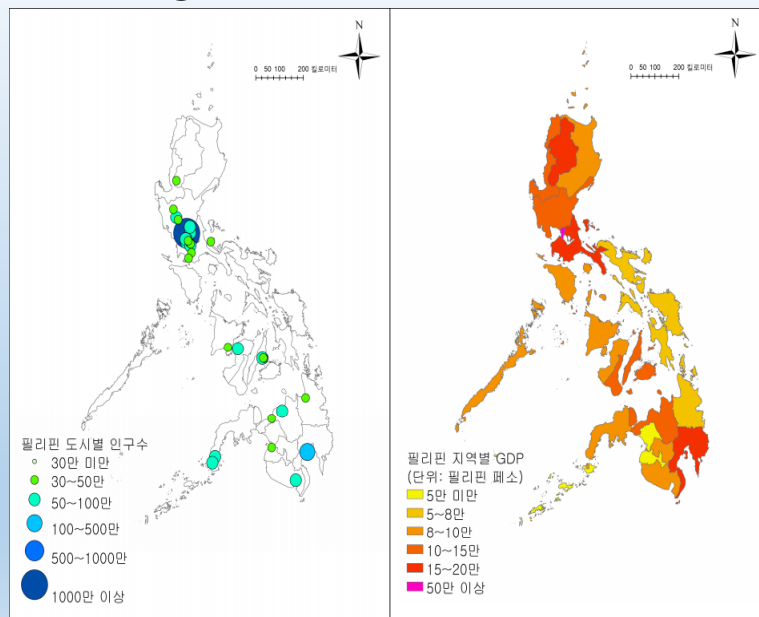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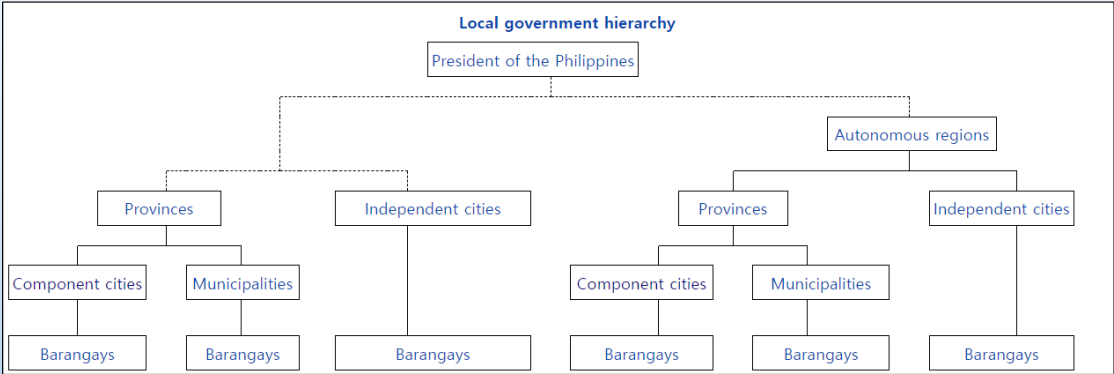
23

필리핀의 국토 공간 구조 및 GRDP



24

필리핀의 지방행정 위계(LGUs)



17 Regions (지역) | 81 Provinces(주) |33 highly urbanized cities(고도 도시)

5 Independent component cities(독립구성도시)| 108 Component cities(구성 도시)

한국의 행정 위계와 ‘매우’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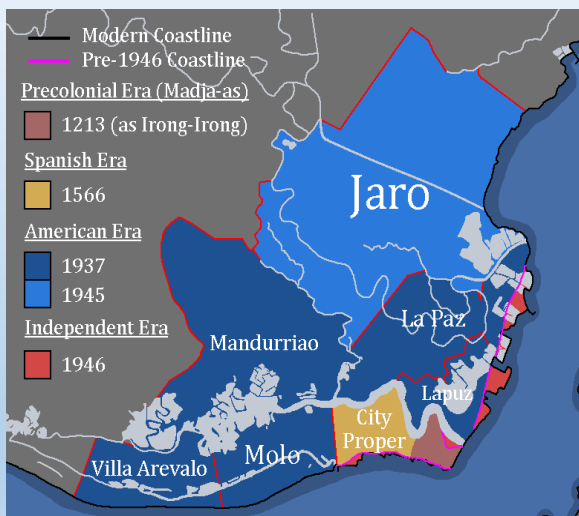


- Highly urbanized cities
- Independent component cities
- Component cities
- Municipalities

일로일로
도시정보



일로일로 도시 정보



- 서부 비사야의 1급 도시
- 인구 457,626 명(2020)
- 면적 78.34 km²
- 안전한 교육도시
- 가톨릭 문화유산(미아가오성당)
- 자로와 몰로의 구 스페인 가옥
- 일로일로 K-town

도봉구 – 일로일로시 관계 진전

- 2023. 5. 필리핀 일로일로시 시장 방문(1차)
- 2023. 10. 필리핀 일로일로시 시장 방문(2차)
- 2024. 3. 필리핀과 MOU체결[자매결연]



제리 트레나스 일로일로시장(왼쪽)과 오연석 도봉구청장이 현지시간 2024년 3월 5일 시청 펜트하우스에서 자매 도시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일로일로시

협력방안 1 : 청소년 어학연수



협력 방안 2: 디나강 축제(Dinagyang Festival)



1월 넷째 주

협력방안 3 : 일로일로 세종학당

King Sejong Institute Iloilo marks a milestone-filled Augus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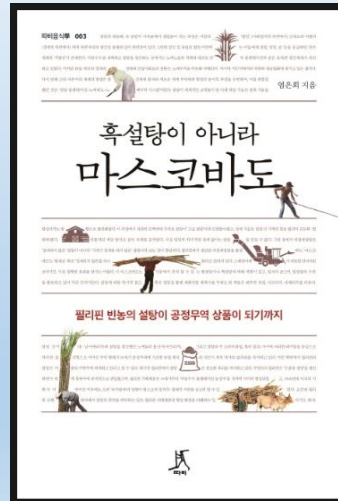
September 5, 2024



Facebook Twitter LinkedIn

• 2024년 8월 신규 개소 웨스트비사야스 주립대학

협력 방안 4 : 공정무역 (iCoop 생협 마스코바도 산지)



한-필 지방정부 교류를 위한 점검 list

1. 기존에 협력의 경험 혹은 교류를 주관한 주체가 있는가?
2. 교류협력의 목적은 무엇인가?
 - 경제적 목적 : 관광 및 투자 유치?!, 노동력(계절제 노동자 포함) 수급을 위한 지역협력
 - 사회문화적 목적 :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어학 연수나 사회봉사 등의 교환 프로그램
3. 협력의 강도와 지속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Q & A

eunhui.eom@gmail.com



필리핀 일로일로 시와 교류 협력방안

2024.9.1 한동만 전 주필리핀 대사

1. 일로일로 시 개요

일로일로 시는 필리핀의 파나이섬에 위치한 독립시이자 일로일로 주의 주도.

필리핀 서부 비사야스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78.34km², 인구는 447,992명이며 기후는 온화한 편으로 26도에서 29도를 기록. 필리핀의 세계적인 휴양지인 보라카이도 소재하고 마닐라, 세부에 비해 범죄 발생 건수가 적은 편.

일로일로 옛 공항부지에 메가월드라는 필리핀 기업이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일로일로 한인회와 메가월드, 일로일로시가 함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메가월드 쇼핑몰에 한인회 사무실과 함께 K-Town을 조성(교민수는 한때 3000-5000명에서 코로나 이후 500명으로 급감)

일로일로는 필리핀에서 국립국장이 가장 먼저 생긴 도시이고 오래된 성당들과 유적들이 많아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일로일로는 슬로건이 ‘안전(Safety)’과 ‘교육(Education)’인 만큼 필리핀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부상



2. 교류 협력분야

가. 교육 및 어학연수

필리핀 어학연수의 발상지로서 한국인(문대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한상 사무부총장, 재외동포포럼 이사, 전 일로일로 한인회장)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지(MK Education Center)를 포함, 약 60여개의 어학원이 소재할 정도로 교육 도시로 유명

사탕수수로 유명한 설탕 원료의 주산지인 아무런 즐길거리가 없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U.P Visayas, Central Philippines University, University of San Agustin, St. Paul University, West Visayas University, University of Iloilo 등 크지 않은 도시에 종합대학(University)이 다수 소재



<2019.1.28 일로일로 시에 소재한 Central Philippines University에서 특강>

일로일로에는 한글학교도 소재하므로 이를 매개로 도봉구 초등학교와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를 추진해보는 것도 고려 필요

도봉구내 초중고교생들의 영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지만, 원어민 영어교육의 접근이 마땅치 않은것이 현실이므로 방학기간 중 단기영어연수(영어 캠프)와 특히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학생들의 영어교육(화상영어 포함) 추진 필요

도봉구 소재 대학(덕성여대)과 일로일로시 소재 대학간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간 고등분야 협력 기반 마련

나. 문화교류

매년 1월 말 필리핀의 일로일로에서 민속 축제인 디낙양(Dinagyang) 축제를 개최
양 도시간 문화교류차원에서 양 도시가 각각 개최하는 축제에 초청하여 상호방문하거나 문화예술단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인사 간 교류강화 필요



<2019년 1월 27일 일로일로 디나강 축제행사의 전야제로 가두행진에 일로일로 한인회와 같이 참석해 한·필 수교 70주년을 홍보>

다. 관광 분야 협력

코로나 이전에 약 20만 명의 한국인이 휴양지인 보라가이를 방문할 정도로 인기 관광지이며 일로일로 시에도 Nelly's Garden, Casa Real de Iloilo 등 스페인 유적지와 Iloilo Museum of Contemporary Art 등 문화 유적지나 박물관 등 다수 소재

도봉산/한류와 연계로 일로일로 시민의 한국방문 등 양 도시간 관광분야 협력

라. 새마을 운동 등 개발 분야 협력

일로일로주는 필리핀에서 새마을 운동이 가장 번창한 곳이므로 도봉구 소재 대학(덕성여대)이나 종교단체의 일로일로 봉사활동 또는 새마을 운동 전파

- 코이카는 풍부한 농업자원을 보유한 파나이 섬을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보고 2009년부터 △일로일로 포토탄 미곡종합처리장 설립사업(2009-2012)과 △파나이섬 고지대 농촌종합개발사업(2015-2019)을 진행해 우리의 산간지역 농업개발 성공경험을 전수
- 2018. 8.30-31간 일로일로시에서 필리핀에서 최초로 새마을 운동 정상회의 개최
 - * 특히 가르시아 주지사가 새마을 운동에 많은 관심
- 2018.12.6. 한동만 주필리핀 대사, 일로일로 주 공무원 75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 특강

